

OPINION

2025년 9월 3일 수요일

독자권익위원 칼럼

김윤자

독자권익위원  
농협 광주본부 경영기획담당



대한민국의 농촌과 지방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문화와 전통, 삶의 가치가 깊이 뿌리 내린 공간이다. 이곳은 국가 정체성과 미래를 키워가는 출발점이지만,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는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며, 국가 식량안보와 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안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화폐 등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 덕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며,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고향사랑기부제, 새로운 지방의 미래

도 기여한다. 나아가 경제적 성과를 넘어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농협은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로 나서고 있다. 전국 1100여개 지역농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히 협력하며, 농업과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의 생산·유통·품질 관리와 판로 확대를 집중 지원해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담례품 제공 과정에서 농협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상품으로 자리잡게 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과 농촌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선순환 경제 구조 형성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담례품 개발이 필요하다. 농협은 농산물뿐 아니라 전통문화 체험, 관광 패키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담례품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은 마케팅 비용 증가와 특정 지역 편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정과 지자체 간 모범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전국적 기부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적 구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 참여 저변 확대도 필요하다. 아직도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거나, 참여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지방재정 보완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정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농협 스스로도 담례품 개발에서 홍보 활동까지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특히 농업인과 소비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방과 그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것이다.

앞으로도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가 모여 살아 숨 쉬는 고향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밝은 미래를 맞이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설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체계 결실 맺어야

새정부가 들어서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제시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도가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에 손을 잡았다.

시는 지난 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국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와 시·도 관계자 등 광주·전남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 시·도 부단체장이 윤번제로 맡아 올내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인, 내년에는 전남도 행정부시사가 책임을 진다. 부위원장은 광주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첫 회의에서는 시·도 정책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도 공동으로 수행 중인 '초광역권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광주·전남 초광역권계획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장기 발전 전략으로, 양 시·도 의제를 넘어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초광역권에 반영될 예정이다.

계획에는 공간구조 재편,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산업·관광·문화 융합 발전, 혁신인재 육성 전략 등이 담겼다.

시·도의 세밀한 준비가 이뤄지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도 이뤄진다면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벨트 육성 등 양 시·도의 공동 추진 과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달 말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도 손을 잡았다.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내 초광역 공동행정 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 기구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양 시·도는 그동안 '광주·전남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동질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경제적 통합, 행정적 통합 등 시·도민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정치력과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으로 광주·전남 상생의 결실이 이뤄지길 바란다.

세계 유일 K-콘텐츠 '디자인과 수목비엔날레'

가을의 문턱 9월, 광주·전남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과 문화의 향연으로 물들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메가이벤트'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지난달 30일부터 동시에 막이 올라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전시회가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아시아 유일'의 디자인을 테마로 한 비엔날레로 실용주의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고유의 문화적 DNA가 융합된 축제의 장을 선보이고 있다.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며, 주요 키워드가 포용디자인이다. 4개 전시관에서 19개국에서 출품한 작품 163점을 11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4회째를 맞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목포·진도·해남 일원에서 20개국 83명(팀)의 작가가 참여해 동서양의 미학이 교차하는 장대한 실험을 펼친다. 국내 유일하게 수목을 매개로 한 현대미술의 실험과 전통의 재해석이 어우러지는 무대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말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남도전통미술관, 소전미술관, 땅끝순례문화관, 고산순선도박물관 등 6곳에서 전시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렇듯 대도 알만한 수목화가 공개 유투버의 '세마도' 진본이 321만만에 최초로 첫선을 보이며, 경제 정선, 다산 정약용, 그리고 수화 김환기와 천경자 화백 등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 동시에 열리는 '디자인과 수목'을 주제로 한 비엔날레는 예향의 문화 진수를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를 잇는 문화플랫폼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절호의 기회다.

전시와 공연, 학술포럼,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선보여 지역 경제 효과도 크다. 숙박·교통·관광이 함께 움직이는 대형 문화행사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세계 유일'이란 타이틀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편리한 접근성, 관람객 친화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젊은 세대와 가족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해야 한다.

비엔날레 개막 열기는 뜨거웠다. 이 열기를 끝까지 이어가려면 '관람객과 호흡하는 비엔날레'가 돼야 한다. 광주·전남의 두 비엔날레가 K컬처의 새로운 정을 여는 성공적인 메가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구정치

주광주 중국총영사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승전 80주년의 해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의 해이다.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이 가장 먼저 시작됐고, 가장 오래 지속됐다. 중국 인민은 거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동방 주전장을 떠맡았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군민의 사상자는 3,5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1937년 환율로 계산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1000억 달러 이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5000억 달러 이상이다. 중국 전장은 오랫동안 일본 군국주의의 주력 부대를 견제하고 저지하며 150만 명 이상의 일본군을 섬멸했고, 일본 침략자의 완전한 패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의 항전은 전략적으로 연합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유럽 전장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 전략 행동에 협력했으며, 일본 파시스트와 독일·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전략적 협력 시도를 제약하고 무너뜨렸다.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항일 전쟁에 대해 "만약 중국이 없었다면 일본군은 즉시 호주와 인도를 정복하고, 중동에서 독일군과 합류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는 대만 광복 80주년의 해이다. 대만 광복은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 승리, 나아가 세계 반파시스트 승리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 대만의 중국 반환은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일련의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이 중국의 대

역사를 아로 새기며 평화의 미래를 열자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며

만에 대한 주권을 충분히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사와 법률 근거와 사실도 명확하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의 해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가장 중대한 국제적 합의는 바로 유엔의 창설이었다. 지난 80년간 유엔은 세계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이 됐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중국은 유엔 창설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유엔 헌장'에 서명하며 '대소 국가의 평등 권리 보장'을 헌장에 수록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오늘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유일한 개발도상국으로서, 유엔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독특한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한반도 광복 8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파란만장한 세계 반파시스트 투쟁 속에서 한반도 인민들은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민족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정면하고도 감동적인 역사를 써내렸다. 1907년,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한일신협약' 체결을 강요했다. 그러나 용감한 한반도 인민들은 독립을 열망하는 뜨거운 불씨는 단 한 순간도 꺼진 적이 없었으며 침략에 강경하게 맞섰다. 독립을 위하여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 정부를 수립하며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 선생과 홍경우 공원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윤봉길 의사 등 독립 운동가들은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한국의 수많은 의士들이 평화와 민족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열망을 품고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역사를 잇는 것은 배신과 다름없으며 역사를 기억해야

만 미래를 열 수 있다. 얼마 전 나는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모든 외교관과 함께 광주백범기념관을 방문하여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전개한 항일 운동의 고난사를 회고했다. 우리는 중한 양국 선열들이 서로 돕고 함께 싸웠던 역사적 기억을 되새기며 그들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애국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1933년, 광주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음악가 정용성은 중국에 와서 항일 구국 활동을 펼쳤으며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항전의 불길을 지켰고 중국 항일 전쟁과 한국 독립운동에 불후지공을 남겼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중한 양국의 사회 안정, 경제 번영, 국민의 행복은 단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고 비극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2차 세계 대전 승리의 성과를 확고히 수호해야 하며 역사적 진실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만 한다.

얼마 전 중한 양국은 수교 33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3년 동안 중한 관계는 전면적이고 빠른 성장을 이뤘으며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큰 기여를 했다.

오늘날 중한 관계는 각자 국내 및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역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며, 양국은 역사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 상호 조성을 계속 견지하며 시대에 맞춰 서로를 바르게 인식하고, 양국 지도자가 합의를 잘 이행함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긴밀히 하며, 우호적인 민의를 공고히 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하며 양국 우호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야 한다.

기고

기길호

광주 동구 주민복지국장



최근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화제가 된 K-문화를 꼽으라면 단연 '폭풍 속이었다'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소개되면서 역주행 현상이 일어났는데, 필자도 그 계기로 몰아서 보게 됐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관식이가 자기 밥그릇을 들고 팔과 아 내가 있는 법상으로 반 바퀴 돌아앉은 장면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상석에 앉아 따로 식사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관식이의 행동은 거부장적 질서에 대한 조용한 혁명이었다. 그 장면에서 "아빠는 아빠의 전쟁을 해냈다. 엄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다"는 내레이션의 메시지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드라마를 두고 우리의 남존여비의 거부장적 문화에 대해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공감을 받았던 이유는 섬세한 표현력 때문이라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대해 관식이의 '반 바퀴 돌아앉기'가 가장 극적인

양성평등기념 주간과 양관식의 '반 바퀴 돌아앉기'

장면이 된 것은 새로운 남성성을 대안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애순이를 향한 관식이의 마음은 단순히 애초가 혹은 공적거라 표현하기엔 부족한 그 너머에 있다. 관식이는 아내 애순이의 삶과 꿈, 주체성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서 병든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엄마에게 다정해 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위에서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곁에서 "다정하게" 존재한 관식이에겐 시정자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남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에서 탈출하고 싶은 갈망은, 여성은 남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희망을 관식이를 통해 투사한 것은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 국가들이 바로 양성평등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대와 요구에 시달리거나 제한받지 않는 사회는 구성원의 행복에 매우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동구가 지향하는 인문도시는 단순히 책과 예술을 가까이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 개개인의 존엄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도시를 뜻한다. 그렇다면, 인문도시는 무엇으로 측정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많은 시민들이 독서와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이러한 인문적 활동은 시민 개개인의 삶과 일상으로 재현되고, 궁극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말과 태도, 관계의 질적인 변화로 표현돼야 한다. 일상은 '대화'와 '성찰의 무대'로, 말과 태도는 '공동체적 존중'으로, 관계는 '이해와 협력'으로 말이다. 관식이가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고 약자의 자리로 돌아앉은 사건은 애순이와의 관계를 질적으로 전환시킨 변곡점이었다.

성평등은 도시의 인문적 가치와 연결돼 있으며, 공동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이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때, 도시는 내적 성장을 통해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제30회 양성평등 주간이다. 양성평등 주간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매년 9월 첫째 주를 법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7월 첫 주로 진행하던 양성평등 주간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해 9월 첫 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양성평등 주간 슬로건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성평등의 의미와 실천을 확산시켜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a list of staff members.